

陽毒白虎湯으로 개선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험 1례

김지환 · 김민지 · 손한범 · 배효상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Case Study of a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improved by Yangdokbaekho-tang

Ji-Hwan Kim, Min-Ji Kim, Han-Beom Son, Hyo-Sang Bae, and 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report the main effect of Yangdokbaekho-tang to a Soyangin atopic dermatitis patient.

Methods

This patient was treated by Yangdokbaekho-tang, topical herbal extract, moxa and acupunctu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Results and Conclusions

The patient's subjective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and general condition were improved after using Yangdokbaekho-tang in spite of patient's loose stool. The SCORAD index (Scoring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which was used to evaluate the therapeutic effect of Sasang constitutional treatment on atopic dermatitis was also decreased from 86.3 to 42.8 without using anti-histamine or steroid medications.

Key Words: Atopic dermatitis, Soyangin, Yangdokbaekho-tang

Received October 16, 2013 Revised October 17, 2013 Accepted October 29, 2013

Corresponding Author 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undang Korean medical hospital of Dongguk university, 87-2, Sunae 3-dong, Bundang-gu, Seoungnam-si, Gyeonggi-do, 463-865, Rep. of Korea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혹은 아토피 습진(Atopic eczema)은 영아기에 발병한 후 심한 소양감과 열감 등의 주증상을 바탕으로 재발되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서양의학에서는 SCORAD(Scoring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등의 척도로 중증도를 평가하여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제제, 항히스타민제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한다¹.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奶癬, 胎癬, 胎斂瘡, 四蠻風, 浸淫瘡, 血風瘡 등의 범주에서 風, 濕, 熱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파악하여² 溫清飲, 升麻葛根湯, 回春涼膈散, 荊防敗毒散, 白虎湯, 六味地黃湯 등을 위시한 다양한 처방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³.

한편 사상의학에서는 ‘陽毒發斑’이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상처방을 활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 다양한 임상례가 보고되었다^{4,6}. 陽毒發斑에 대한 다양한 사상처방 중 少陽人に 특화된 처방으로는 본 증례에 사용된 陽毒白虎湯이 있으며 지금까지 본 처방을 사용하여 두드러기⁷, 만성 부비동염⁸,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⁹을 다룬 치험례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실제 『東醫壽世保元』에서 陽毒白虎湯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陽毒發斑에 便秘를 겸할 때¹⁾ 혹은 纏喉風이나 唇腫의 輕症이 있을 때²⁾에 대한 사항뿐이므로 기존의 陽毒白虎湯을 활용한 증례논문들 역시 裏熱을 위주로의 주증상에 便秘가 겸해 있을 때 陽毒白虎湯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치험례의 경우 중증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한 환자가 裏熱이 심한 주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원 전 몇 일간 설사를 했으며 내원 전일에는 무른 변을 본 시점에서 陽毒白虎湯을 17일간 처방한 결과, 기존에 처방받은 모든 양방치료제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피

부염의 임상증상과 SCORAD index 그리고 일반증상이 모두 개선되는 치료 효과를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證例

1. 환자: ○정○ / M 25

2. 치료기간: 2013년 8월22일~9월7일 (17일간)

3. 진단명: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L209)

4. 주소증: 전신 소양감 및 홍반, 구진

5. 발병일: 2013년 8월 17일경 심화 (유년기에 잠깐 발병 후 소실되었다가 18세부터 재발함)

6. 과거력: 2004년 아토피 피부염 증상 재발로 강남 경희한방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
2011년 카포시 수두양 발진으로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

7. 가족력: 모친이 유방암 치료 후 호전

8. 사회력

1) 흡연력 : 1일 1개피

2) 음주력 : 別無

3) 직업 : 영업직

9. 현병력

상기 환자는 유년기에 두면부 위주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다 증상이 자연 소실되었으나, 18세 때 천연비의 부작용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 2004년 OO

1)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陽毒白虎湯...治陽毒發斑 便秘者 宜用”

2) 『東醫壽世保元』 『少陽人泛論』 “少陽人...謂之纏喉風...謂之唇腫...此二證 始發而輕者 當用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한방병원에서 1주일간 금식 및 한방치료 후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2011년 다시 카포시 수두양발진으로 OO 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3년 8월 17일 갑작스럽게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되고 전신 소양감과 발적이 심해져 근처 로컬 피부과에서 3주간 항히스타민제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매주 1회 총 3회에 걸쳐 맞았는데도 증상은 변함이 없어서, 한방치료를 받고자 2013년 8월22일 본원 사상체질과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10. 체질소견

- 1) 體形氣像 : 상기환자는 신장 174cm에 체중 86kg의 배가 나온 비만한 체형으로 늑골각은 110°로 흉곽이 넓다.
- 2) 容貌詞氣 : 얼굴은 둥근 편이며 눈끝은 약간 올라가고 눈빛은 날카롭다.耳目口鼻는 크지 않은 편이며 목소리가 덩치에 비해 얇고 카랑 카랑하다.
- 3) 性質材幹 : 평소 예민하고 까다로우며 지기 싫어하고 부당한 일에 시정을 요구한다. 환경 변화에도 예민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고 불평도 많이 하는 편이다.
- 4) 素證
 - (1) 睡眠 : 평소 입면난과 수면 중 각성으로 인해 불량하다.
 - (2) 食慾·消化常態 : 평소 불규칙하게 식사하며 빨리 많이 먹으나 소화는 잘 시키지 못한다.
 - (3) 大便 : 1일 1회 보통 변을 보지만 굵진 않으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설사를 한다.
 - (4) 小便 :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며 소변은 맑은 색으로 양이 많다.

(5) 口渴 飲水 :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으로 입이 자주 마른다.

(6) 汗 : 땀이 잘 나지 않는 편이나 땀이 날 때는 얼굴 위주로 나며, 땀 흘린 후 상쾌하다.

- 5) 체질진단 : 體形氣象, 그리고 QSCC II와 의사 결정나무 설문지¹⁰ 결과는 太陰人으로 나왔으나, 容貌詞氣, 性質材幹, 素證 및 病證에 의거하여 사상체질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본 환자는 少陽人으로 판단되었다.

11. 초진소견

- 1) 全身症狀 : 기력은 좋으나 밤낮이 바뀌는 생활로 인해 주간동안 피로감을 느낀다.
- 2) 睡眠 : 야간에 소양감이 심해지며 새벽3~6시 정도에 얇은 잠을 자고 주로 낮잠을 잔다.
- 3) 食事 : 아토피 증상완화와 체중감량을 위해 하루 1끼 1공기의 밥만 먹는다. 속은 더부룩하다.
- 4) 大便 : 최근 3~4일간 설사를 1일 1회 하였고 입원 전일 무른 변을 1회 보았다.
- 5) 小便 : 소변을 자주 보며 소변색은 황색이다.
- 6) 汗, 飲水 : 땀을 적게 흘리며 땀이 나면 상쾌하다. 입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신다.
- 7) 瘙癢感 : 전신 소양감이 심하여 수시로 긁으며 주로 밤에 심해진다.
- 8) 爪痕, 苔蘚化 : 주슬관절 내측은 爪痕과 苔蘚化 현상이 심하여 피부가 갈라지고 두껍다.

Table 1. Prescription of Soyangin Yangdokbackho-tan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Weight(g)
石膏	Gypsum	20
生地黄	Rhemanniae Radix	16
知母	Anemarrhenae Rhizoma	8
荊芥	Schizoneepetae Herba	4
防風	Sposhnikoviae Radix	4
牛蒡子	Arccii frucus	4

9) 發熱, 發赤: 발열과 함께 전신, 특히 두면부, 경부, 주슬관절 내측으로 심한 발적이 나타난다.

Extremely high

10) 舌, 脈: 舌紅微黃苔, 脈浮

(3) CBC : Lymphocyte : 19.2 (참고치 20~45%)

Monocyte : 21.6 (참고치 4~12%)

그 이외의 수치는 모두 참고범위에 속함.

11) 로컬 피부과 처방 양약

(4) UA : Within Normal Limits

- (1) 올로파정(Olopatadine hydrochloride 5mg) 1T bid : 항히스타민제
- (2) 코알비정(Levocetirizine HCl 5mg) 1T bid : 항히스타민제
- (3) 아나솔정(Methylprednisolone 4mg) 1T bid : 부신피로스테로이드
- (4) 판타제엠정(Metoclopramide HCl 5.27mg) 1T bid : 소화제

2) 방사선소견(2013년8월22일) : Chest PA Normal

12. 검사소견

III. 治療 및 經過

1) 임상병리소견 (2013년8월23일)

1. 治療방법

1) 藥物治療

입원 당일부터 少陽人 陽毒白虎湯(Table 1)을 1일 3첩 전탕 후 총 3포(120cc/포)로 나눠 매 식후 30분에 하루 3번 복용하였다.

(1) Total IgE : 1826.0 (참고치 131~164.3 IU/ml)

(2) Multiple allergosorbent Test (MAST; 식이성 항원) (참고치 0.00~0.34 IU/ml)

2) 鍼灸治療

동방침구에서 나온 직경 0.25mm, 길이 30mm 1회 용 stainless 호침을 사용하여 少陽人 太極鍼法인 經渠, 復溜, 太白 등에 補瀉없이 1일 1회 자침하였고, 15분간 유침하였다.

① Alternaria(곰팡이류) : >100 ; Extremely high

② Aspergillus(곰팡이류) : >100 ; Extremely high

③ Candida albicans(칸디다곰팡이) : >100 ; Extremely high

④ D. farinae(큰다리먼지진드기) : >100 ; Extremely high

3) 附缸治療

背俞穴을 위주로 乾式附缸을 1일 1회 실시하였다.

⑤ D. pteronyssinus(세로무늬진드기) : >100 ;

Table 2. Scoring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in Detail during Admission Treatment

Date (Days of hospital treatment)	8.22-23 (1-2)	8.24-26 (3-5)	8.27-29 (6-8)	8.30-9.1 (9-11)	9.2-4 (12-14)	9.5-7 (15-17)
1) Affected area(%)	103.0	90.0	86.5	84.0	78.5	51.5
2) Intensity of Symptom	13.0	14.0	11.0	8.0	8.0	7.0
Dryness	2	3	2	2	2	2
Erythema	2	2	2	1	1	1
Edema	2	2	2	1	1	1
Oozing/Crusting	2	2	2	1	1	1
Excoriation	2	2	1	1	1	1
Lichenification	3	3	2	2	2	1
3) Subjective symptoms	20	18	15	13	11	8
Sleep disorder	10	9	8	6	6	5
Severity of itching	10	9	7	7	5	3
SCORAD severity index	86.3	85.0	70.8	57.8	54.7	42.8

* SCORAD ; Scoring Atopic Dermatitis

Table 3. General Symptoms in Detail during Admission Treatment

Date (Days of hospital treatment)	8.22-23 (1-2)	8.24-26 (3-5)	8.27-29 (6-8)	8.30-9.1 (9-11)	9.2-4 (12-14)	9.5-7 (15-17)	
1) Stool	Form	None (8.22) Loose (8.23)	Normal	Normal (8.27-28) Hard (8.29)	Hard (8.30) Normal (8.31-9.1)	Hard (9.2-3) Normal (9.4)	Loose
	Tenesmus	-	+	+	+	+	-
	2) Stomach tenderness	+++	++	++	+	±	-
3) Chills	-	++	+	-	-	-	
4) Fever	+++	++	+	+	±	±	

+++ : severe, ++: moderate, +: mild, ± : trace, - : elimination

4) 外用 韓藥塗布

金銀花, 蒲公英, 苦參, 紫草를 각 20g씩 취하여 전탕 후, 총 8포(120cc/포)로 나눠담았다. 이후 매일 1회 1포씩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피부에 멸균된 거즈를 이용하여 고루 도포하였다.

2. 평가도구

- 1) PO-SCORAD (Patient Oriented-SCORAD)¹¹: PO-SCORAD program-Window version³⁾을 이용하여 3일 간격으로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평

가하였다.

- 2) 피부병변을 매일 사진 촬영하였으며 수면, 식욕, 소화, 대소변 등의 변화도 매일 관찰하여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평가하였다.

3. 임상경과 (Table 2, 3, 4), (Figure 1, 2)

- 1) 2013년 8월 22-23일(입원1-2일): 입원을 한 후 기존에 처방받은 항히스타민·스테로이드 제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모두 중단 하였고 오후에 탕약을 복용 후 취침했으나 전신 상열감 및 피부 소양감이 입원 시보다 심해져 1~2시간 간격으로 기상하며 아토피 습진 부위를 긁어 주·슬관절 내측에 爪痕이 새로 생겼다.

식은는 초기 2일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3끼를

3) <http://www.fondation-dermatite-atopique.org/en/healthcare-professionals-space/scorad-and-po-scorad#poscorad>

Table 4. The Change of Skin Lesions according to Treatment

Date	Days of hospital treatment	Skin lesions			
		Face	Chest	Arms	Legs
8.22-23	1-2				
8.27-29	3-5				
9.2-4	12-14				
9.5-7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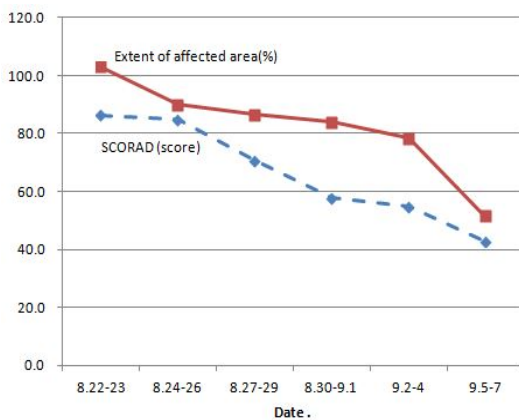


Figure 1. The change of scoring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SCORAD) and extent of affected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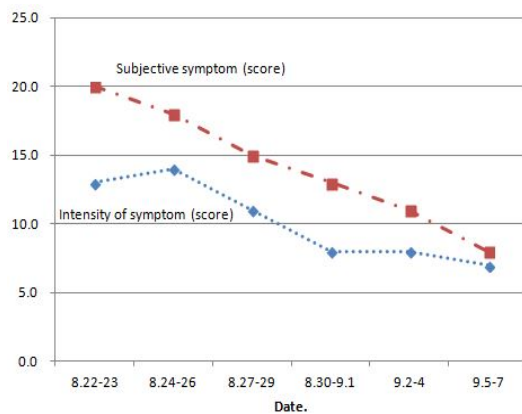


Figure 2. The change of intensity and subjectivity of symptoms

먹었지만, 대변은 보지 못했으며 中腕에 압통도 존재했다. 다음날 대변은 오히려 무른 변이 나오게 되었으며 후중감은 없었다. 하지만 중완부 압통은 지속되었다.

2) 2013년 8월 24-26일(입원 3~5일) : 입원 3일

제가 지나면서 열감과 소양감은 다소 감소하면서 발적의 정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면불량의 양상은 지속되었고 피부 건조도는 증가되었다. 하지부위의 피부가 안정화 되면서 아토피 습진 부위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열감이 있는데도 전신 오한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약 외용제 도포 시 심하게 몸을 떨

정도로 추위를 타는 양상을 보였다. 환자 본인의 요구로 채식에서 일반식으로 식이를 바꾼 후 중·석식 두 끼 1공기를 다 드셨다. 배변 시 후증감은 있으나 대변이 점차 보통 변으로 바뀌면서 1일 1회 소량 보게 되었다. 하지만 中脘의 압통은 지속되었다.

3) 2013년 8월 27-29일(입원 6~8일) : 아토피 피부염 부위의 면적은 소폭 감소했으며 소양감은 경부위주로 국한되기 시작하였고 발적도 많이 감소되었다. 소양감이 줄어들면서 수면이 개선되어 취침시간이 빨라지고 입면 중 각성하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더불어 爪痕이 생기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오한 현상은 감소경향을 보이면서 약육시에만 다소 추위를 호소하였다. 보통 변을 보다가 굳은 변 소량을 보았고 후증감은 지속되었다. 中脘의 압통은 지속되었다.

4) 2013년 8월 30일-9월 1일(입원 9~11일) : 수면 전 경부 위주로 소양감이 심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간부의 소양감과 발적은 줄어들었고 수면도 안정되었다. 굵은 횡수가 감소하면서 피부의 발적과 상처도 덜 생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부 병변은 주로 경부나 주관절 내측 위주로 남게 되었다. 오한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대변은 보통 변과 굳은 변을 교대로 보았으나 후증감은 변화가 없었다. 中脘의 압통은 입원 시 보다 반 정도 감소하였다.

5) 2013년 9월 2-4일(입원 12~14일) : 수면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으나 소양감은 입원 시보다 반으로 줄어서 소양감으로 인한 수면 불량보다는 평소 생활습관으로 인한 불면양상을 보였다. 소양감은 주로 경부와 안면부, 주관절 내측

으로 한정되었으며 체간부위나 하지부의 피부는 다소 발적이 있으나 거의 정상화 되었다. 다만 기상 시 피부 건조감을 계속 호소했으며 전신에 걸친 피부 건조 현상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다.

대변은 굳은 변과 보통 변을 번갈아 보았고 후증감은 지속되었으나 중원부 압통은 거의 소실되었다.

6) 2013년 9월 5-7일(입원 15일~퇴원일) : 수면불량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고 피부 전반에 걸친 건조감은 더 이상 변화없이 지속되었으나 소양감은 더욱 감소하여 입원 시에 비해 30%만 남아있게 되었다. 발적으로 인한 피부 색깔은 연해졌으며 경부의 소양감만을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SCORAD 점수는 입원 시 86.3에서 퇴원 시에는 42.8로 감소되었다. 대변이 무른 변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1일 1회 배변의 양상은 지속되었다. 후증감, 중원부 압통은 모두 소실되었다.

IV. 考察 및 結果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소양감, 발적, 가피형성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아토피 습진(Atopic eczem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발병 원인들로 유전적 결함, 식이 불균형, 환경 오염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표피에 분포하는 Filaggrin 단백질의 생산 감소, 정상인과는 달리 IL-4 cytokine을 생성하는 Th2 세포의 우세로 인한 Ig E의 과다한 생성, 면역기전의 이상으로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과의 병발과 같은 병리 기전은 점차 밝혀지고 있다. 양방적인 치료를 위해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나 Calcineurin 억제제, 항생제, 전신성 면역조절제, 그

리고 UV를 이용한 광선치료 등이 권장되며 완치가 안되는 만성적 질병 경과 때문에 평소 식이조절, 환경 개선, 피부연화 연고의 잦은 사용 등의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¹².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胎癬, 四彎風, 乳癬 등이 현대의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여겨져¹³ 이에 준한 치료방법이 적용 중이다. 사상의학에서는 陽毒發斑이라는 개념이 현대의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하다고 보며 太陰人인 경우 三陽病의 범주로 보아 葛根解肌湯이나 黑奴丸으로 치료하고⁴, 少陽人인 경우 險證에 속하므로 白虎湯과 石膏를 활용하여 치료한다^{5,6}고 기재되어 있다¹⁴. 특히 少陽人의 경우 陽毒白虎湯이 少陽人의 陽毒發斑을 위한 처방으로 언급되고 있다. 陽毒白虎湯은 이제마의 저작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을 통틀어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는 유일한 처방으로¹⁵, 陽毒白虎湯은 白虎湯의 주성분인 石膏, 知母에 少陽人의 주약인 生地黃이 가미되어 裏熱을 없애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痘證에 사용하는 消毒飲⁷의 주성분인 牛蒡子, 荊芥, 防風을 가미해¹⁶ 裏熱의 陽毒으로 인한 피부의 發斑을 치료할 때 사용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유아기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으며 성인이 되어 증상이 재발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된 카포시 수두양 발진으로 양방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소양감과 발적을 겪은 25세의 남환이다. 본 환자는 2013년 8월 17일경부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3주간 로컬 양방의원에서 항히스타민제제, 스테

로이드제제를 경구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스테로이드주사를 총 3회에 걸쳐서 맞았고 이 역시 별다른 치료효과를 보이지 않자 직장을 그만두고 2013년 8월 22일 본원 사상체질과로 입원하여 양약치료를 모두 끊은 후 한방치료를 받게 되었다. 입원 시 전신에 걸쳐서 심한 발적, 열감이 동반된 가려움으로 수면이 불량했으며, 경부, 주술관절 내측과 발등 부위에는 爪痕으로 인한 상처가 심하게 나 있었고 전신에 걸친 피부건조감과 인설이 나타나는 상태였다. 이처럼 본 환자는 陽毒發斑이라는 주증상과 함께 음수량, 소변색, 舌診, 脈診이 少陽人 裏熱證의 범주에 해당하여 陽毒白虎湯의 적절한 사용례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전 3-4일간 소량의 설사를 했으며 입원 전에는 무른 변을 보았으므로 便秘가 있을 때 사용한다는 陽毒白虎湯의 적용지시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확연히 熱證으로 심한 陽毒發斑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원당일 저녁부터 陽毒白虎湯 3첩을 3포로 나눠 3번에 먹게 하여 반응을 살폈다. 陽毒白虎湯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날 대변을 보지 않았으나 오히려 다음날 무른 변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게다가 입원 3일째부터는 보통 변을 보기 시작하였으나 약육을 할 때마다 심하게 오한이 발생하고 안정 시에도 냉감을 호소하며 동시에 피부의 건조감이 증가되어 SCORAD index상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강도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陽毒白虎湯의 지속적인 사용을 고민해보게 되었다. 하지만 입원 6일째부터 피부 병변의 면적은 줄어들고 소양감이 다소 완화되자 수면도 천천히 개선되었다. 또한 오한이 발열의 감소와 함께 줄어들고 증원부 압통의 감소도 감소하였다. 우려했던 설사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보통 변을 보기 시작했으나 후증감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므로 陽毒白虎湯의 사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환자는 이후 陽毒白虎湯를 계속 복용한 이후 발적, 가피, 爪痕 등의 아토피 피부염의 기본 증상의 감소와 함께 이상증상이었던 오한, 증원부 압통, 후증감 모두 소실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다.

- 4) 『東醫壽世保元』「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三陽病深變爲陽毒面赤眼紅身發斑黃...當用葛根解肌湯 黑奴丸.”
- 5)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陽毒發斑流注丹毒黃疸等病 受病之日已爲險證也.”
- 6)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少陽人一人得傷寒熱多寒少之病 有人教服雄肉湯 仍成陽毒發斑余教服白虎湯連三貼...藥囊祇 有石膏一斤滑石一兩而無他藥.”
- 7) 『東醫壽世保元』「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消毒飲 牛蒡子 二錢 荊芥穗 一錢 甘草 防風 各五分...治痘不快出及胸前稠密”

본 연구에서는 PO-SCOR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환자의 피부병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다. 기존에 아토피 습진의 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DQ(Atopic Dermatitis Quickscore),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SCORAD(Scoring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SASSAD(Six Area Six Sign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dex 등의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¹⁷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SCORAD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피부 면적을 분획하여 알아보는 피부 분포(상한치 103%까지 가능), 발적, 爪痕, 건조도 등을 0~3점으로 평가하게 되는 증상 강도, 그리고 수면의 질과 최소 3일의 밤·낮 동안 소양감 정도를 10점 만점의 VAS(Visual analog scale)로 파악하는 주관적 증상 강도,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특히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PO-SCORAD 프로그램은 증상 강도에 대한 기준 도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자동으로 SCORAD 총점이 계산되어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치료 경과를 기능하는데 용이하였다. SCORAD 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Severe, 15~40점은 Moderate, 15점 미만은 Mild로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가 판별되는데¹⁹ 본 증례의 환자는 입원 시 SCORAD 점수가 86.3점에 해당하여 양방에서는 입원 치료가 요구되고 Cyclosporin A와 같은 전신적 면역억제제와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가 적용되는 수준의 중증 환자였다. 하지만 모든 양방치료를 중단하고 陽毒白虎湯 복용과 外用 韓藥塗布, 鍼灸治療만으로 임상증상의 강도를 낮출 수 있었다. 아쉽게도 퇴원 시 SCORAD 점수가 42.8에 해당되어 아직 점수 상으로는 Severe의 범주에 속하지만, 실제적인 임상증상은 훨씬 개선되어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했다.

이러한 개선 효과의 주된 역할을 한 陽毒白虎湯의 주성분은 1첩에 20g에 해당하는 石膏로, 본 환자는 매일 60g의 石膏를 복용하였다. 이제마는 石膏가腎을 엽신여기면서 胃주위를 침범하는 熱氣를 쫓아내는 효능을 가진 것⁸⁾으로 생각하였다²⁰. 또한 이제마는 白虎湯이 大便不通에 사용하는 처방이라 생각했는

데 이러한 기전은 石膏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므로 石膏를 少陽人의 裏熱病에 대변을 통하게 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⁹⁾. 그러므로 환자의 대변 상태가 무르거나 설사를 할 경우에는 石膏가 사용된 처방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조문에서는 裏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록 환자가 설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石膏를 사용할 수 있으며 荊防瀉白散 加味方 뿐만 아니라 石膏가 포함된 地黃白虎湯을 사용할 수 있다고¹⁰⁾ 명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石膏는 대변을 통하게 하는 약이긴 하지만 그 기전 상 실제 대변이 통하게 되는 이유가 少陽人의 裏熱을 제어하기 때문이므로, 石膏의 사용 시 便秘여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환자의 裏熱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변은 裏熱에 대한 관찰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g의 石膏가 君藥으로 사용되는 地黃白虎湯이나 陽毒白虎湯의 운용 시에도 裏熱의 상태를 가늠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변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본 환자는 비록 입원 초기 설사나 무른 변의 상황이 있었으나, 피부의 발적, 열감 등의 아토피 피부염 주증상과 음수량, 소변색, 脈診, 舌診의 결과 모두 裏熱의 상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陽毒白虎湯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裏熱의 치성에 조기 대응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빨리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少陽人表裏病의 정도 파악을 위해 大便을 관찰할 때 ‘小小滑利’의 경우 장차 大便不通의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예방이 필요하다¹¹⁾는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내용과도

8) 『東武遺稿』“石膏 爲腎元帥之藥 能驅逐腎元虛弱而不能制外熱 熱氣侮腎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

9)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脾受寒表寒病” “石膏 裡熱病通大便之藥也.”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少陽人內觸大腸病論” “白虎湯 通大便之善藥而 非破胸膈水結之好藥也.”

10)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脾受寒表寒病” “少陽人 身熱頭痛 揚手擲足引飲者 此險證也 雖泄瀉 必用石膏. 無論泄瀉有無 當用荊防瀉白散 加黃連芩萸各一錢 或地黃白虎湯.”

11)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胃受熱裏熱病” “少陽人表裏病 結解 必觀於大便...或一晝夜間三四五次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

연관이 있다. 한편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오한증상은, 金銀花 · 蒲公英 등으로 구성된 清熱 外用濟를 塗布하여 피부의 소양감과 열감을 감소시키면서 소실된 것으로 보아, 石膏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寒證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스테로이드 제재중단 이후 발생한 심한 표피 발적 및 발열 상태 시,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기온에 환자의 피부가 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본 증례의 중증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입원 시 기존에 사용하던 양방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外用 韓藥塗布, 鍼灸治療로 보조한 陽毒白虎湯(石膏 60g/일)의 복용만으로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를 나타내는 SCORAD 점수가 86.3점에서 42.8점으로 감소되어 일상생활에 17일만에 복귀하게 되었다. 게다가 입원 초기에 설사 혹은 무른 변 상태였음에도 陽毒白虎湯의 복용과정에서 심한 설사와 같은 부작용 없이 대변도 양호해지고 중완부 압통, 후중감 등도 해소되었으므로 이에 본 증례를 보고한다.

V. 參考文獻

- Darsow U, Wollenberg A, Simon D, Taïeb A, Werfel T, Oranje A, et al. Difficult to control atopic dermatitis. *World Allergy Organ J.* 2013;6(6):1-5.
- Park MC, Kim JM, Hong CH, Hwang CY. A literature study about the comparison of oriental-occidental medicine on the atopic dermatitis. *J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2002;15(1):226-252. (Korean)
- Lee SH, Yun YG. Study for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in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J Traditional Korean Med.* 2006;15(1):56-69. (Korean)
- Sun TC, Yoon YK, Chou LS, Jung DY. A case report on Sasang constitutional therapies for atopic dermatitis of Teumin patient. *Korean J Oriental Internal Med.* 2003;24(4):987-994. (Korean)
- Lee SY, Bae HS, Park SS. A case report of Soeumin atopic dermatitis patient improved by Gwakyangjeonggi-san. *J Sasang Constitut Med.* 2010;22(4):106-112. (Korean)
- Kim ST, Choi AR, Koo DM. A case report of Soeumin adult atopic dermatitis improved with Sipyimigwanju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13;25(2):115-123. (Korean)
- Choi JR, Bae HS, Park SS. The case study of Soyangin Yangdokbalban.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3):197-203. (Korean)
- Lee HM, Park SH. A case of chronic sinusitis patient improved by Yangdokbackho-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283-292. (Korean)
- Han SJ, Song JM. A case report of Soyangin adult atopic dermatitis patient treatment with Soyangin formulae.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178-185. (Korean)
- Park EK, Lee YS, Park SS. A study of constitution diagnosis using decision tree method.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2):144-150. (Korean)
- Stalder JF, Barbarot S, Wollenberg A, Holm EA, De Ravee L, Seidenari S et al. Patient-oriented SCORAD (PO-SCORAD): a new selfassessment scale in atopic dermatitis validated in Europe. *Allergy.* 2011;66:1114-1121.
- Berke R, Singh A, Guralnick M. Atopic dermatitis: An overview. *Am Fam Physician.* 2012;86(1):35-42.
- Gong NM, Jee SY. A literature study about comparison of eastern-western medicine on the atopic dermatitis. *J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1999;12(1):241-253. (Korean)
- Lee JM. *Donguisusebowon.* 2nd rev. ed. South Korea: Yeougang. 2003:159-160, 162, 170-172, 179-181, 203, 209-210, 226. (Korean)
- Bae H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prescrip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3):33-51. (Korean)
- Seo W, Song JM. A study about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s prescrip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7;

- 9(1):213-243. (Korean)
17. Carel K, Bratton DL, Miyazawa N, Gyorkos E, Kelsay K, Bender B, et al. The Atopic Dermatitis Quickscore (ADQ): validation of a new parent-administered atopic dermatitis scoring tool.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08;101(5):500-507.
 18. European task force on atopic dermatitis. Severity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the SCORAD index. Consensus report of the European task force on atopic dermatitis. *Dermatology.* 1993;186(1):23-31.
 19. Darsow U, Wollenberg A, Simon D, Taïeb A, Werfel T, Oranje A, et al. ETFAD/EADV eczema task force 2009 position paper 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10;24: 317-328.
 20. Lee JM. Korean translation-Hanuihakdaegye Volume 15 Dongmuyugo. Seoul: Haedong. 1999:152.(Korean)